



광주교통공사, 송원대 교육생 현장실습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송원대 학교 철도아카데미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19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사와 송원대간의 산학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기관사 등 현장 전문 인력들이 강사로 참여, 중정비고 견학, 선로전환기 취급, 열차 시운전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을 현장감 있게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생들은 철도 기관사의 필수자격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실제 철도 현장에 나와 생생한 실습을 통해 습득했다는 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철도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육군 31사단 현역 장병, 약사 국가고시 합격

육군 제31보병사단 소속 현역 장병이 약사 국가고시(약사고시)에 합격했다. (사진)

19일 31사단은 "이순신여단 통신중대 압호병으로 군복무 중인 황영선 병장이 최근 실시한 제76회 약사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미국 약사고시에 합격한 황 병장은 결혼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에 입대했다.

31사단은 "황 병장은 전역 후 조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대한민국 약사고시에 도전했다"며 "일과 시간에는 임무에 매진하는 한편 병영 내 동아리 활동 등 개인정비 시간을 활용해 매일 7시간씩 공부한 끝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군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황영선 병장은 "부대와 전우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기독교교단협, 취약계층에 2800여만원 기부

교단협 소속 교회 자발적 모금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2800여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광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성금 모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광주시·구 기독교단협의회가 모금한 성금 2843만7000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 이종석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장,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2024 빛고을성탄문화축제'의 성탄트리 점화식 및 따뜻한 겨울

올나기 성금 모금 발대식이 열린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62일 동안 기독교교단협의회 소속 교회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2012년부터 매년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기독교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한 전국 최초의 연합모금 방식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기독교교단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광주는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기부가 모여 더욱 따뜻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품치 자원 회복 앞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는 품치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과 함께 여수 중화동 해역을 중심으로 종자 1303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1200만 마리 이상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사진)

전남지역 품치 어획량은 2020년 약 400톤에 달했으나, 지난해부터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105톤 수준으로 감소해 한 마리에 1만~2만 원선하던 품치가 5만~6만 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품치는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해 겨울철 별미로 인식되며 어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몇 년간 품치 자원량이 줄어들면서 겨울철 남해안 대표 어종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8년부터 여수 품치 어업인과 협력해 지난해 총 1억5755만 마리를 방류, 자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의회, 지방의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전남도의회는 19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전남도의회사무처 및 시·군 의회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자치법규 입안·심사,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정치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사례 연구 △자치법규 실무 △지자체 우수조례 분석 등 입법 과정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강의가 진행됐으며, 국제 경제와 정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태권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 직원들의 입법 실무 역량을 키우고,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통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금호고속, 장례서비스 관련 임직원 복지향상 앞장

금호고속이 세종요양병원·금호장례식장·화산장례식장·송정장례식장과 함께 지난 18일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금호고속은 임직원들에게 해당기관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및 입원 진료 비용 할인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들이 의료와 장례 서비스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관계자는 "금호고속 임직원분들께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와 장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임직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야간 합동순찰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와 백운1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17일 관내 취약지역 점검 및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민·경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순찰에는 경찰 관계자와 방범대원 등 25명이 참여했으며, 백운동 원림초교와 석산고등학교 주변 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순찰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찰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자율방범대의 건의사항 및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동섭 백운지구대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범죄 예방 활동과 민·경 치안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구의회-혈액원, 헌혈문화 정착 협약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정기적인 헌혈 참여 및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 헌혈 동참', '헌혈문화 정착 지원', '건전한 기부·자원봉사활동 문화 확산 노력' 등에 상호협력한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북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헌혈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무송 북구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헌혈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매년 반복되는 혈액 수급 위기를 함께 극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방림2동-송정1동, '고향사랑' 교차기부 협약

광주 남구는 19일 방림2동과 광산구 소재 송정1동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차기부 협약식에는 방림2동과 송정1동 직원 및 자생단체 회원 30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300만원씩을 기부하며 상호 발전을 기원했다. 광주 남구 제공